

경북방언의 인용 구문 연구

권 재 일

(언어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경북 방언, 범위를 좀더 한정하여, 경북의 북부방언권의 방언을 대상으로 인용 구문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여, 이를 바탕으로 방언 문법 분화의 한 양상을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정 방언의 공시적인 문법 특성을 밝혀보려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 분화의 양상과 원인을 규명하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정 방언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방언 분화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주로 음운 현상, 어휘 현상에 집중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분화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는 이유와, 그리고 방언의 조사, 분석, 기술이 명료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방언 문법에 대한 기술과 그 분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문법 현상의 분화를 밝히는 것은 음운이나 어휘 현상의 분화를 밝히는 것보다는 방법론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의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비록 방법론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 구문은 역사적으로 그 구성 방식이 변화해 왔다. 언어의 역사를 반영하는 여러 방언에는 인용 구문의 형식과 문법 특징이 다양하게 변이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 구문의 다양한 변이 현상을 밝히는 일은 한국어의 문법 변화를 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은 경북의 북부방언을 대상으로 인용 구문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여, 이를 바탕으로 방언의 문법 분화와 한국어 문법 변화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이 글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 구문에 대한 문법적 지위를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규명한다. 둘째, 인용 표지와 그 실현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인용 구문의 상위문 동사(=인용 동사)와 그 실현 양상을 분석한다. 넷째, 간접 인용 구문에서의 청자높임법의 중화 현상에 대하여 기술한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떠한가를 밝혀 방언 문법의 분화 현상의 한 단면을 살핀다

한국어의 다른 방언 구획과 다를 바 없이, 경북방언도 하위 지역에 따라 방언 현상이

*이 논문은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포함제철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모두 동질적이지는 않다. 음운, 어휘는 물론이고 문법 형태소의 목록과 체계 등은 각 하위 방언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대상 지역을 경북의 북부방언권으로 한정한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의 지역이 경북의 북부방언권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공통된 문법 형태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이 지역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필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행한 현지에서의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한편 음운의 경우가 아닌 어휘나 문법의 방언 조사에서는 구비문학 자료의 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을 찾아 내거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때 잘못 분석에 의한 표기의 오류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한 임재해 편 (1982)는 방언 화자가 직접 조사한 것이어서, 이 방언의 어휘 및 문법 현상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II. 인용 구문의 성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 구문이라 한다. 즉 한 문장의 서술어가 인용절을 안고 있는 구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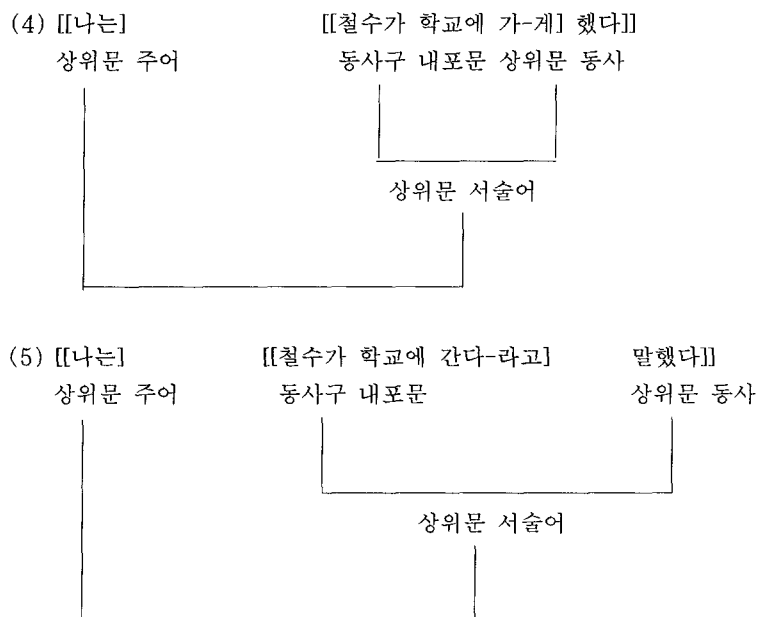
- (1) ㄱ. 그는 “제가 직접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ㄴ. 그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장 (1)과 같이 ‘말하다’란 동사가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 또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라고’ 또는 ‘-고’와 같은 인용 표지를 통해 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어의 인용 구문을 완형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규명한 바 있다(권재일 1992 제12장). 한국어 복합문의 유형을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 체계화할 때, 상위문이 하위문을 간접 관할하는 복합문 구성이 내포문 구성이다. 내포문 구성은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하위 유형으로 체계화되는데, 명사구를 통해 관할하는 구성이 명사구 내포문 구성이고, 동사구를 통해 관할하는 구성이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다. 동사구 내포문 구성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2)는 의존 용언 구문이고, (3)은 인용 구문이다.

- (2) ㄱ.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가-게] 했다.
 ㄴ.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3) ㄱ.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라고] 말했다.
 ㄴ.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1) 경북 북부방언권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은 권재일 (1994: 제6장) 참조.

문장 (2)와 (3)에서 [] 안의 구성은 ‘하다, 싶다, 말하다’ 등의 서술 기능을 보완한다는 동일한 통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 안의 구성은 복합문의 하위문으로서, 상위문 동사구에 내포되는 ‘동사구 내포문’이다. 문장 (2)과 (3)은 다음과 같은 구조 (4), (5)로 분석된다.



(2)의 ‘철수가 학교에 가-’는 상위문 동사 ‘하다’의, (3)의 ‘철수가 학교에 간다’는 상위문 동사 ‘말하다’의 서술 기능을 각각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사 기능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2)의 의존동사 구문과 (3)의 인용 구문을 함께 묶어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서 인용 구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위문 동사인 인용 동사가, 의향어미를 갖춘 인용절을 안고 있으며, 여기에는 ‘-라고’ 또는 ‘-고’와 같은 인용 표지가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 구문은 화자의 인용 태도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뉜다.²⁾ 직접 인용은 누군가가 한 말, 생각, 느낌 등을 화자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며,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절의 여러 성분을 화자의 관점에서 주체, 객체, 시간, 공간 등을 조정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³⁾

2) 인용 구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논의는 안경화(1995) 참조. 안경화(1995)에서는 인용 구문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외에 중간 단계로 준직접 인용, 준간접 인용 등을 더 설정하였다.
 3) 일반적으로 실제 언어 활동에서 보면,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을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직

- (6) ㄱ. 동생이 “저는 지금 가야 되니더[← 되-니-더, †됩니다].”라 하이[← 하-니],
 아버지가 “서둘러 가거래이.” 그디더[← 그-디-더, †그러더군요].⁴⁾
 ㄴ. 동생이 지금 가야 된다고 하이, 아버지가 서둘러 가라고 그디더.

이 글의 대상인 경북의 북부방언에도 역시 인용 구문은 인용절이 상위문 동사에 안긴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며, 이 때 인용 표지가 관여한다. 그리고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과 간접 인용 구문으로 실현되고 있다. 문장 (6ㄱ)은 직접 인용 구문이며, 문장 (6ㄴ)은 간접 인용 구문이다. 간접 인용 구문 (6ㄴ)은 직접 인용 구문 (6ㄱ)이 화자의 관점에서 조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인용 표지

인용 구문에는 인용 표지가 관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는 방언에 따라 인용 표지가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의 인용 구문에는 인용 표지가 없다.⁵⁾

- (7) ㄱ. 王이 怒하야 니르샤디 ... “그 蓮花를 버리라.” 하시다. (석보상절 11: 31)
 ㄴ. 聖인이 ... “차물 기를 姪女를 비스뵤 오라.” 하시씨 오스보이다. (월인석보 8: 91)
 ㄷ. 耶輸 | “부텃 使者 았다.” 드르시고 (석보상절 6 2)
 ㄹ. 佛은 知者 | 라 혼 마리니 (월인석보 9. 12)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인용 표지 없이 인용 구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인용 표지가 발생되어 현대 한국어에 이르렀다.⁶⁾

현대 한국어에서 인용 구문에 관여하는 인용 표지에는 ‘-고’와 ‘-라고’가 있다. ‘-고’는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을, ‘-라고’는 간접 인용을 내포시키는 데 관여한다.⁷⁾

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을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의 언어 의식 구조가 화자와 청자 중심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허원욱(1995: 755) 참조.

4) 이 글에서 방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편이상 형태소 분석은 ‘그디더[←그-디-더]’로 표기하고, 의미 풀이는 ‘그디더[†그러더군요]’로 표기하기로 한다.

5) 15세기 한국어의 인용 구문에 대한 연구는 강인선(1977) 및 허원욱(1993: 188-277)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권재일(1994: 제12장 참조). 한편 안주호(1991: 372-380)에서는, 한국어에서 인용 표지가 출현한 것은 19세기의 비언해류부터라고 했다. ‘-고’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일동장유가」라고 지적했다.

울산슈와 니의숙이 왓노라고 전갈호디 ...

비방의 도로 드러 눈감고 누엇더니 대마도 갓갑다고 사궁이 니르거늘

7) 이러한 ‘-고’와 ‘-라고’를 일반적으로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인용 조사로 본다. 허웅(1983: 212)에서는 인용의 특수도씨로, 남기심(1973: 9)에서는 완형보문자로, 이상복(1983: 133)

- (8) ㄱ.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ㄴ.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ㄷ.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라고 말했다.

경북방언도 마찬가지로 인용 구문에 관여하는 인용 표지에 ‘-고’와 ‘-라고’가 있다. ‘-고’는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을, ‘-라고’는 간접 인용을 내포시키는 데 관여한다.

- (9) ㄱ. 동생이 “저는 지금 가야 되니더.”라고 하이, 아버지가 “서둘러 가거래이.” 그디더.
 ㄴ. “저 높은 산꼭대기에 무쇠탑을 백 길만 싸아라[← 쌓-어라].”고 그드라네[← 그-더-라-고 하-네].
 (10) ㄱ. 동생이 지금 가야 된다고 하이, 아버지가 서둘러 가라고 그디더.
 ㄴ. 내보고 읍내 드가야[← 들-어 가-어야] 된다고 그래이[← 그래-니], 우엘[#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 머[#뉘].

이와 같이, 인용 표지는 문장 (9)와 같이 직접 인용 구문에서는 ‘-라고’ 또는 ‘-고’가 쓰이고, 문장 (10)과 같이 간접 인용 구문에서는 ‘-고’가 쓰인다. 그런데, 경북 방언에서는 인용 표지의 실현은 수의적이다. 따라서 문장 (9)와 (10)은 인용 표지 없이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 (11) ㄱ. 동생이 “저는 지금 가야 되니더.” 하이, 아버지가 “서둘러 가거래이.” 그디더.
 ㄴ. “저 높은 산꼭대기에 무쇠탑을 백 길만 싸아라.” 그드라네.
 (12) ㄱ. 동생이 지금 가야 된다 하이, 아버지가 서둘러 가라 그디더.
 ㄴ. 내보고 읍내 드가야 된다 그래이, 우엘 도리가 있나 머.

문장 (11), (12)에서는 인용 표지 ‘-고’가 생략되어 있다. 문장 (9), (10)은 (11), (12)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11), (12)의 본래의 구조는 (9), (10)으로 상정된다. 그래서 (9), (10)에서 ‘-고’가 생략되어 (11), (12)가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 가지 특징은 두 경우 가운데 인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즉 ‘-고’가 생략된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담화 가운데서도 인용 표지가 생략된 경우가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경북 방언의 인용 구문에서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인용 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문장 (13)보다는 문장 (14)가 더 자연스럽다.

- (13) ㄱ. “나는 지금 가야 된다.”고 하이, 바로 가라고 하디더.

에서는 인용조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권재일(1992)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완형 동사구 내포어미로 기술하였다.

- ㄴ. 한 문중에 백 년을 살었다고 그래드래도[≠그러더라도], 모두 삼백년이 지났을다 [≠지났겠다].
 - ㄷ. 깨끗한 장소로, 참 깨끗이 해서 모신다고 이래면서도,
 - ㄹ. “그래서 머[≠뭘] 세 때 늘 소고기국 먹고 있다.”고 이카거던[≠말하거든].
 - ㅁ. “그럼 갔다 온나[≠오너라].”고 그랬니더.
 - ㅂ. 거 인제 벼슬 하라고 태종대왕이 그카이[← 그카-니].
- (14) ㄱ. “나는 지금 가야 된다.” 하이, 바로 가라 하디더.
- ㄴ. 한 문중에 백 년을 살었다 그래드래도, 모두 삼백년이 지났을다.
 - ㄷ. 깨끗한 장소로, 참 깨끗이 해서 모신다 이래면서도,
 - ㄹ. “그래서 머 세 때 늘 소고기국 먹고 있다.” 이카거던.
 - ㅁ. “그럼 갔다 온나.” 그랬니더.
 - ㅂ. 거 인제 벼슬 하라 태종대왕이 그카이.

그러나 인용 표지 ‘-라고’와 ‘-고’의 수의적인 생략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의 생략은, 다음 절에서 살펴겠지만, 인용 동사가 대동사-류인 경우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서 위의 문장 (11), (12), (14)에서와 같이 인용 동사가 ‘하다, 그래다, 그다, 이래다, 이카다, 그카다’ 등인 경우에 수의적으로 생략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라고’나 ‘-고’가 실현된다.

- (15) ㄱ. “이 병에는 한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하드래.
- ㄴ. 언제 왔느냐고 물고는[≠물고는] 그냥 지나 가 부렀다[≠버렸다].
 - ㄷ. 안 넘겨 주고 고마 흐지부지 내려갔다고 나는 생각했제.
 - ㄹ. 밥을 갖다 주이 거 고맙다고, 고개를 꾸버꾸벅했다.
 - ㅁ. 그래 참 집에 드가자고[≠들어가지고], 만단으로[≠온 힘을 다해] 달래 봤거든요.
 - ㅂ. 고마 분주타고 과객 못친다고, 내쫓아 부레[≠버려].

현대 한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 역시, 인용 구문처럼, 의향어미를 갖춘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인용 표지가 관여하지 않는다.⁸⁾

- (16) ㄱ. 나는 그 사람을 내일쯤 만날까 한다.
- ㄴ. 나는 그 사람을 내일쯤 만날까 보다.
 - ㄷ. 나는 그 사람을 내일쯤 만날까 싶은데, 그쪽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네.

경북 방언에도 이러한, 인용 표지가 관여하지 않은, 의향어미를 갖춘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 있다. 이러한 구문의 인용 동사에는 ‘하다, 보다, 싶다, 접다’ 등이 있다.

- (17) ㄱ. 나는 그 사람을 내일쯤 만날까 한다.

8) 이 경우를 필자는 특수한 완형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라 규정한 바 있다(권재일 1992 제15장).

- ㄴ. 꺾제에[#갑자기] 귀신이 들었는지 싫어가주고, 걱정이 태산 같다.
- ㄷ. 참 숙맥이구나 저워서[← 접-어서], 고마 놀게[#놀려] 댈다.

IV. 인용 동사

동사 가운데, 인용 동사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동사의 의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⁹⁾

- (18) ㄱ. 저 사람이 왜 일전에 머 괜찮다 그디마는[←그-더-니-마는] 세상을 뺏네.
- ㄴ. “자네 거 올 생각 있는가?” 물으이[←문-으니], “생각 없네.” 그드라.
- (19) ㄱ. *저 사람이 왜 일전에 머 괜찮다고 바라디마는 세상을 뺏네.
- ㄴ. *저 사람이 왜 일전에 머 괜찮다고 아디마는[←알-더니-마는] 세상을 뺏네.

인용 동사로 실현될 수 있는 동사는 크게 ‘말하다’를 비롯한 화행동사와 그의 대동사-류, 그리고 심리동사 등으로 나뉜다.

[1] ‘말하다’와 그의 대동사-류

- (20) ‘말하다’
 - ㄱ. “이 병에는 한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하더라.
 - ㄴ. 거 저 날 술 한 잔 달라고 말해도 들은 체도 았았다.
- (21) ‘하다’
 - ㄱ. 그 양반이 육십 아홉에 난다 해요.
 - ㄴ. 고마 인제 시집을 어디로 갔노 하면, 대단한 집이래.
 - ㄷ. 못된 사람 한 번 욕을 보인다 하는, 그런 보복 이야기가 있어.
- (22) ‘이래다’
 - ㄱ. 사기는[#살기는] 이 동구 곁에 어데 머 산다 이래요.
 - ㄴ. “있으며 어예고 없으면 어엘라노[←어예-올라-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거든.
 - ㄷ. “고대로 해가주고 내한테 가주 온나.” 이래.
 - ㄹ. “보시더. 거 같이 먹시더[←먹-시더, #먹읍시다].” 이랬다.

(23) ‘그래다’

-
- 9) 인용절을 안을 수 있는 동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남기심 1973: 19, 안경화 1995: 23-).
1. 화행동사류: 말하다, 단언하다, 주장하다, 적다, 쓰다, 기록하다, 묻다, 질문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약속하다, 사과하다, 축하하다 …
 2. 심리동사류: 들다, 믿다, 생각하다, 느끼다 …

- ㄱ. “이 손님 참 께시고 왔니더.” 그라이, 어서 들라고 했다.
 ㄴ. “어디서 왔노?” 그랬다.
 ㄷ. “아나[#아이나] 잘 보고 술이나 자시고 심심풀이하소.” 그라이, “그러마.” 하더라.
 ㄹ. 고마 가자 그래도 당체[#도무지] 말을 들어야제[#들어야지].

(24) ‘그다’

- ㄱ. “저는 장아[#장-에] 간 일이 없는데요.” 그이,
 ㄴ. “질 걸 마할라고[#무엇 하려고] 달게[#덤벼] 드노?” 그그든,
 ㄷ. 거기로 자꾸 올라오라 그다[#그러더냐]?
 ㄹ. “아 보소, 그거 한 저름 맛 좀 보시더.” 그이께네[#라고 말하니까],
 ㅁ. 그 어른이 침질이 안 계신다 그디[#그러더니], 졸지에 그래 됐노?

(25) ‘그카다’

- ㄱ. “내 이놈의 문중에는 욕을 좀 해야 된다.” 그카이께네,
 ㄴ. “얼굴이 옛날 멍[#여전히] 고대로네.” 그카메 반가와 했다.
 ㄷ. 거 인제 벼슬 하라고 태종대왕이 그카이,

(26) ‘이카다’

- ㄱ. “에이고 신랑이사[#산랑이야] 좋다마는…” 이카이께네,
 ㄴ. “무슨 말을 그래 하니꺼[#합니까]? 섭섭하이더[#섭섭합니다].” 이카디더.
 ㄷ. “아, 관계없이, 드온나[#들어 오너라].” 이캐.

(27) ‘카다’

- ㄱ. “대체[#도대체] 암만 생각해도 나는 모를다.” 카디마는,
 ㄴ. 우리가 남의 나라보다 뒤떨어졌다 카는 거는.
 ㄷ. “거 술값 안 주니꺼?” 카이,
 ㄹ. 거울이 크기가 얼마나 됐노 카면,
 ㅁ. 원래 모든 것을 조심해서 다니라 카는 말이 있어요.
 ㅂ. 저끼리[#자기네끼리] 해 뿌자[#버리자] 카고는 모른 체 했다.

[2] 그밖의 경우

‘말하다’ 외에도 ‘묻다, 듣다, 약속하다, 주장하다, 쓰다, 적다’를 비롯한 화행동사들과 ‘생각하다, 달래다’ 등의 심리동사들도 물론 인용 동사로 실현된다.

- (28) ㄱ. “자네 거 올 생각 있는가?”라고 물으이,
 ㄴ. 우리가 명산 쓸 걸 못 썼다고 들었다.
 ㄷ. 그럼 고마 갔다 온다고 약속하고는 가 부랬다.
 ㄹ. 가가[#그 아이가] 그렐 리가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다.
 ㅁ. 지금은 산에 드가지 마라고 써 낫잖애.

- (29) ㄱ. 안 넘겨 주고 고마 흐지부지 내려갔다고 나는 생각했제.
 ㄴ. 그래 참 집에 드가자고 만단으로 달래 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인용 표지가 특정한 인용 동사와 함께 실현되면 생략된다고 했는데, 이때, 인용 표지뿐만 아니라, 인용 동사의 어간도 함께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 문장 (30ㄴ)에서는 인용 표지 ‘-고’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인용 동사 어간 ‘하-’까지 생략될 수 있어 (30ㄷ)과 같다. 이것이 ‘-고 하-’ 구성의 생략 현상이다.

- (30) ㄱ.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고 하디더.
 ㄴ.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 하디더.
 ㄷ.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디더.

그런데 앞에서 ‘-고’의 생략은 인용 동사가 대동사-류일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인용 동사 어간의 생략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음 문장 (31ㄱ)은 (31ㄴ, ㄷ) 등에서 인용 동사 어간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31) ㄱ.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디더.
 ㄴ.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디더.
 ㄷ.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디더.

한편 문장 (32)와 같이 ‘-고’만 생략되는 구문에서는 의항법 제약이 없으나, 문장 (33)처럼 ‘-고’와 인용 동사 어간이 함께 생략되는 구문에서는 서술법, 의문법만 가능하고, 명령법, 청유법은 불가능하다.

- (32) ㄱ.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 하디더.
 ㄴ.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 하디꺼?
 ㄷ.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 하시이소[← 하-시이-소, †하십시오].
 ㄹ.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 하시더.
 (33) ㄱ.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디더.
 ㄴ.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디꺼?
 ㄷ.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시이소.
 ㄹ. *형이 지금 집에 가야 한다시더.

다음과 같은 구문은 [‘인용절’-(고 하)는 것이다], [‘인용절’-(고 하)는 말이다]로 해석되는 구문으로, 인용 구문의 인용 동사는 역시 ‘하다, 말하다’ 등으로 상정된다. 문장 (34)는 (35)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문은 인용 표지 ‘-고’와 인용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모두 생략된 것이다.

- (34) ㄱ. 거 인제 아버님 좀 참아 달라 이계라.
 ㄴ. “글소리 들으러 왔다.” 이계라.

- ㄷ. 나는 머라[#뭐라] 그래이 되노 말이래.
- ㄹ. “그럼 드시지요.” 대번 칸다 말이래.
- (35) ㄱ. 거 인제 아버님 좀 참아 달라고 하는 게라.
- ㄴ. “글소리 들으로 왔다.”고 하는 게라.
- ㄷ. 나는 머라 그래이 되노 하는 말이래.
- ㄹ. “그럼 드시지요.” 대번 칸다고 하는 말이래.

다음은 인용 표지는 실현되면서, 인용 동사의 어간과 어미 모두가 생략된 구문의 예이다. 문장 (36)은 (37)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 (36) ㄱ. 고마 분주타고 과객 못친다고, 내쫓아 부레.
- ㄴ. 밥을 갖다 주이 거 고맙다고, 고개를 꾸벼꾸벅했다.
- (37) ㄱ. 고마 분주타고 과객 못친다고 하면서/말하면서, 내쫓아 부레.
- ㄴ. 밥을 갖다 주이 거 고맙다고 하면서/인사하면서, 고개를 꾸벼꾸벅했다.

다음과 같은 문장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38) ㄱ. 아까매로[#아까처럼] 똑 글이[#같이] 멩그러[#만들어] 났다고.
- ㄴ. 얼른 안 오고 거게서 머하냐고.
- ㄷ. 고마 한 잔 먹고 여[#여기서] 노라고.
- ㄹ. 새로 할라면 새로 하자고. 인제 오케[#정말로] 하자고.
- (39) ㄱ. 내가 장개가게 뵈다고?
- ㄴ. 내보고 일이 더디냐고?
- ㄷ. 안주[#아직] 오지 마라고?
- ㄹ. 마카[#모두] 가 보자고?

문장 (38), (39)는 의미적으로 문장 (40), (41)과 같이 해석된다. 즉 인용 동사(예 하다, 말하다, 물다, 씨기다, 칭하다)가 생략되었다.

- (40) ㄱ. 아까매로 똑 글이 멩그러 났다고 한다/말한다.
- ㄴ. 얼른 안 오고 거게서 머하냐고 한다/묻는다.
- ㄷ. 고마 한 잔 먹고 여 노라고 한다/씨긴다.
- ㄹ. 새로 할라면 새로 하자고 한다/칭한다. 인제 오케 하자고 한다/칭한다.
- (41) ㄱ. 내가 장개가게 뵈다고 했나/말했나?
- ㄴ. 내보고 일이 더디냐고 했나/물었나?
- ㄷ. 안주 오지 마라고 했나/씨겼나?
- ㄹ. 마카 가 보자고 했나/말했나?

V. 간접 인용 구문과 청자높임법

직접 인용 구문과는 달리, 간접 인용 구문에서 인용절의 의향어미는 청자높임의 등급의 제약을 받는다. 즉 인용절이 서술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다'만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의문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으냐', 명령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으라', 청유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자'만 허용된다.

- (42) ㄱ. 동생이 지금 가야 된다고 말했다.
 ㄴ. 동생이 지금 가야 되느냐고 물었다.
 ㄷ. 나는 동생한테 지금 가라고 했다.
 ㄹ. 동생이 지금 같이 가자고 했다.

이와 같이 간접 인용 구문에서 인용문의 의향어미는 반드시 청자높임법의 등급이 중화된 어미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3) 서술법(평서법)의 경우:

- ㄱ.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다.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ㄴ. 동생이 그 책을 읽었-네.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네-고 말했다.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ㄷ.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니더.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니더-고 말했다.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44) 의문법의 경우:

- ㄱ. 동생이 그 책을 읽었-나 ?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나-고 물었다.
 ㄴ. 동생이 그 책을 읽었-는가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는가-고 물었다.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나-고 물었다.
 ㄷ.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니껴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니껴-고 물었다.
 → 나는 동생이 그 책을 읽었-냐-고 물었다.

(45) 명령법의 경우:

- ㄱ. 그 책을 읽-어라.
 →*나는 그 책을 읽-어라-고 말했다.
 → 나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
 ㄴ. 그 책을 읽-게.

- *나는 그 책을 읽-게-고 말했다.
 → 나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
 ㄷ. 그 책을 읽-으시오.
 →*나는 그 책을 읽-으시오-고 말했다.
 → 나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
- (46) 청유법의 경우·
- ㄱ. 그 책을 읽-자.
 → 나는 그 책을 읽-자-고 제안했다.
 ㄴ. 그 책을 읽-세.
 →*나는 그 책을 읽-세-고 제안했다.
 → 나는 그 책을 읽-자-고 제안했다.
 ㄷ. 그 책을 읽-시더.
 →*나는 그 책을 읽-시더-고 제안했다.
 → 나는 그 책을 읽-자-고 제안했다.

서술법의 경우, 문장 (43)에서와 같이 평서법만을 살펴보았는데, 이른바 감탄법과 약속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장 (47)은 감탄법의 경우이고, (48)은 약속법의 경우이다.

- (47) 감탄법의 경우·
- ㄱ. 날씨가 꽤 춥-구나.
 →*날씨가 꽤 춥-구나-고 말했다.
 → 날씨가 꽤 춥-다-고 말했다.
 ㄴ. 날씨가 꽤 춥-구만.
 →*날씨가 꽤 춥-구만-고 말했다.
 → 날씨가 꽤 춥-다-고 말했다.
- (48) 약속법의 경우·
- ㄱ. 내가 그 일을 하-마.
 → 내가 그 일을 하-마-고 말했다.
 →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ㄴ. 내가 그 일을 하-께.
 →*내가 그 일을 하-께-고 말했다.
 → 내가 그 일을 하-마-고 말했다.
 →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장 (47)의 감탄법에서는 평서어미로 바뀌어 '-다'만 허용된다. 이는 감탄법은 평서법과 같은 의향법 범주, 즉 서술법에 귀속되며, 서술법과 대등한 별도의 독자적인 의향법의 하위범주가 될 수는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문장 (48)에서 보면, 간접 인용절에 실현되는 약속어미는 '-으마' (청자높임의 등급이 '-다'와 같은)이며, 평서법의 '-다'로도 실현된다.¹⁰⁾

이상에서와 같은, 간접 인용절의 청자높임이 중화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청자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여 주는, 말하는 환경상의 높임이다. 그런데 청자높임이 실현되었던 문장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사람과 그의 청자에게는 인용절의 청자높임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청자높임이 실현되었던, 그 말하는 환경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말하는 환경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청자높임을 인용절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 인용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인용의 내용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¹¹⁾

Ⅵ. 맺 음 말

인용 구문은 역사적으로 그 구성 방식이 변화해 왔다. 언어의 역사를 반영하는 여러 방언에는 인용 구문의 형식과 문법 특징이 다양하게 변이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 구문의 다양한 변이 현상을 밝히는 일은 한국어의 문법 변화를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경북의 북부방언을 대상으로 인용 구문의 여러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사구 내포문은 서술어의 서술 기능을 보완한다. 이러한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서 인용 구문은, 상위문 동사가, 의향어미를 갖춘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 구성이다. 그리고 인용 구문은 화자의 인용 태도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뉜다.

(2) 인용 구문에는 ‘-라고’ 또는 ‘-고’와 같은 인용 표지가 관여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는 방언에 따라 인용 표지가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경북 방언에서 실현되는 인용 표지에는 ‘-고’와 ‘-라고’가 있다. ‘-고’는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에, ‘-라고’는 간접 인용에 관여한다. 그런데, 경북 방언에서 인용 동사가 대동사-류일 때, 인용 표지는 수의적으로 생략된다. 이 경우, 인용 표지가 생략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보편적인 표현이다.

(3) 동사 가운데, 인용 동사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동사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다. 인용 동사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화행동사 ‘말하다’와 그의 대동사-류인 ‘하다, 이래다, 그래다, 그다, 그카다, 이카다, 카다’ 등이다.

10) 감탄법과 약속법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필자는 의향법을 체계화하는 자리에서, 감탄법과 약속법은 서술법과 다른, 독자적인 의향법의 범주이기보다는 서술법에 귀속되는, 서술법의 하위범주라는 사실과, 감탄법보다는 약속법이 훨씬 더 독자성이 있는 범주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권재일 1992: 제5장).

11) 이러한 설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허원옥 (1995: 764) 참조.

(4) 인용 표지가 생략될 때, 인용 표지뿐만 아니라, 인용 동사의 어간도 함께 생략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 생략). 또 인용 표지 ‘-고’와 인용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모두 생략되기도 하고(‘-고 하-[어미]’ 생략), 인용 표지는 실현되면서, 인용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생략되기도 한다(‘하-[어미부분]’ 생략).

(5) 직접 인용 구문과는 달리, 간접 인용 구문에서 인용절의 의향어미는 청자높임의 등급이 제약 받는다. 즉 인용절이 서술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다’만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의문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으냐’, 명령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으라’, 청유문일 경우 의향어미는 ‘-자’만 허용된다. 청자높임이 실현되었던 문장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사람과 그의 청자에게는 인용절의 청자높임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청자높임이 실현되었던, 그 말하는 환경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 인용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인용의 내용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선 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권재일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_____ 1985, 경북방언의 의존동사의 통사론적 연구, 「한글」 190, 한글학회.
 _____ 1986, 경북방언의 의존명사, 「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_____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_____ 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 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신선경 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 분류, 「국어연구」 73, 국어연구회.
 안경화 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안명철 1991,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안주호 1991, 후기 근대국어의 인용문 연구, 「자하어문논집」 8, 상명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상규·백두현 외 1996,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이상복 1983, 한국어 인용문 연구, 「말」 1, 연세대학교.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필영 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임재해 (편) 1982, 「한국 구비문학 대계」, 7-9 (안동시·안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허 응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_____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원옥 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접월-」, 샘문화사.

_____ 1995, 현대 국어의 인용마디 연구, 「건국어문학」 19-20,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bstract》

A Study of the Quotative Constructions in Kyong-buk Dialect

Jae-il Kwon

Quotative constructions in different dialects display a variety of distinct characteristics in both form and function. As dialects present a synchronic spectrum of the ongoing process of diachronic change, the study of dialect variation can shed important light on issues in language change. With these goals in mind, I have presented a detaile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quotative construction in the Kyong-buk dialect in this paper.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papers are as follows.

1. The quotative construction (QC) is a VP embedded sentence construction where the verb of the main clause (the quotative verb) takes a embedded clause as its complement. The verb of the embedded clause carries mood suffixes. QC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quotative constructions depending on the attitude of the speaker who uses the construction.

2. QC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quotative markers. However, diachronically and dialectally, quotative markers may be omitted. The quotative markers in the Kyong-buk dialect are '-ko' and '-lako'. These may be omitted when the main clause verb is a pro-verb. With pro-verb QCs, it is more common for the QC to occur without quotative marker.

3. The most common verb of quotation is 'malhata'. However, several verbs of saying and pro-verbs (such as 'hata', 'ilayta', 'kulayta', 'kuta', 'kukhata', 'ikhata', 'khata') also function as main verbs in QCs.

4. Quotative marker ellipsis optionally extends to the verb stem of the main clause verb (i.e., the omission of '-ko ha-'), or the omission of the quotative marker plus the entire main clause verb (i.e., '-ko ha-endings'). Sometimes what is elided is not the quotative marker but the main verb itself (i.e., 'ha-endings').

5. In contrast to direct QCs, in indirect QCs,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embedded clause verb with regard to endings that realize hearer-honorific speech level. That is, when the embedded clause is declarative, only '-ta' is allowed. Likewise, the ending is restricted to '-unya' when the embedded clause is interrogative, '-ula' when it is imperative, and '-ca' when it is propositive. This restriction may be explained as follow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speaker who uses an indirect QC to show deference to the hearer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embedded (quoted) clause. This is so because in indirect QCs, the purpose of the speaker is simply to convey the content of the embedded clause rather than to assert it directly with respect to the hearer.